

타이어용 이형제 난립

중소기업 참여경쟁 치열 ... 완전 국산화 실현

국내 타이어용 이형제 시장이 중소기업간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전선이 생산을 중단하는 등 기존 생산기업들의 시장점유율이 크게 감소하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이어용 이형제 시장은 대한전선과 동남합성의 이원공급체계였으나 중소기업들의 참여가 늘어나면서 대한전선은 생산을 중단했으며 동남합성은 공급량이 극히 미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타이어를 비롯한 금호·우성 등 국내 타이어 생산 3사는 각 기업별로 6~7개의 이형제 생산기업으로부터 공급받고 있는데 공급기업들 간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다.

국내 타이어용 이형제시장은 3000여톤, 2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전량 국산품으로 대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일부 특수용도 및 실험용의 수입품을 제외하고 국산품이 품질면에서 뒤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가격은 변동이 없으며 액상이 Kg당 600원 내외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기업 현황을 보면, 세한화학을 비롯 동남합성, 용진유화, 두진산업, 영은화학, 한국유화 등 20여 기업이 경쟁을 벌이고 있다.

한편, 기존 분말형 이형제는 타이어 생산기업에서 액상으로 만들어 사용해야 하는 불편 때문에 대부분 액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타이어용 이형제는 타이어 제조과정에서 내면과 외면의 부착방지를 위해 사용되는데 비이온계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외면에는 실리콘타입, 내면에는 dip solution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타이어용 이형제는 타이어 생산의 확대와 한국·금호 등의 증설계획에 따라 수요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타이어 생산 3개사에 이형제 공급기업이 난립함으로써 시장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화학저널 1994/7/11>